

건축구조기술사를 꿈꾸는 고3 수험생을 바라보며



이희석 도서출판위원회 이사
(주)다스구조엔지니어링 대표

근래에 들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건축구조기술사로서 책임감도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고 있다.

아주 가끔은 일을 하다보면 엔지니어로서 자부심과 현실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구조기술사의 책임에 대해 피로감을 토로할 때도 있게 된다.

엔지니어로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생계유지와 더불어 기술적 지식과 자부심이 동반되어야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직업의 분화, 다양화가 이루어져 여러 직업이 파생되고 각종 자격증, 면허증 등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 각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건축구조기술사를 꿈꾼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술사의 위상과 책임, 기술사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전, 아내 지인의 딸이 고3 수험생인데 건축구조기술사를 꿈꾸며 건축공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가슴이 벅찼다.

고등학생들에게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직업이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건설 경기 침체, 용역비 현실화, 고유 업무영

역 보장, 안전 불감증 등 수많은 난제와 현실 속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힘들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사실에 웬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책임감 또한 느껴진다.

아직까지는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건축구조분야이고, 특히 건축구조기술사는 낯설어 하지만 조금씩 기술사의 역할과 직업이 알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불과 몇 십 년 전, 대학 졸업 후 직업으로써 건축 구조를 선택할 때의 망설임, 결혼을 앞두고 내 직업에 대해 설명할 때의 난감함, 가족들과 지인들조차 건축구조기술사라는 단어 자체를 어려워할 때의 어색함, 기술 분야를 낮춰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의 우울함 등등 처음 구조를 시작할 당시에는 직업적 어려움과 현실적 위축감이 들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직원 중에 소개팅을 하다 직업을 건축 구조라고 소개하자 해양 구조나 산악 구조로 생각해서 여자 분이 대화를 이어 나갔다는 말도 들은 시절이 있었다.

그 만큼 구조분야가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직업으로 인식된 시절이었다.

건축 전문가나 전공자만이 알고 있었던 건축 구조 분야에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알려지려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일부 고3 학생에게라도 꿈을 갖게 하는 관심 직종으로 선택되어진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특히 기술직의 경우는 학과 선택이 훗날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구조기술사가 목표가 되어 학과가 선택되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가 건축가, 건축 종사자라고 불리워지기 보다 건축구조기술사라고 불리워지고 모든 이가 그 단어를 듣고 이해하고 필요로 한다면 더 많은 후배들이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고 인재들이 양성되어질 것이다. 항상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지원자가 많지 않고 연봉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도 힘들 때가 많다. 우리가 현재의 여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에 더욱 힘쓰다면 우리의 근무의 질과 기술사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더 많은 후배들을 양성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항상 후배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건축구조는 해볼 만한 직업이고 건축 분야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물론,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책임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 책임은 권한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서서히 나아가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운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꿈이 뭐야”라고 물을 때 당황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나이가 들며 잊고 있었던 최근 생각해 보지 못했던 꿈이라는 질문에 어려워하신 듯하다.

젊은 사람들, 학생들만 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성세대들이 계속 꿈을 꾸고 도전해 나아가야 변화

와 발전이 있는 것이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꿈인 학생이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꿈은 멈추지 않는다. 몇 십 년이 흐른 뒤 할아버지, 할머니 기술사가 되어도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술사가 목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엔지니어로서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 기술사가 리더가 되어 쾌적한 근무 환경과 복지가 어우러진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꿈꾸어 본다.

기술사가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들로 거듭나 많이 출현하기를 희망해 본다.

기술 리더에서 사회 리더를 꿈꾸며

더 많은 수험생들이 건축구조기술사를 꿈꾸고 더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건축구조를 선택하고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도전하며 꿈을 이루고 더 많은 원로 기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날을 상상해 본다.

꿈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어쩌면 잘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근무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현재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엔지니어를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러한 엔지니어가 많아질수록 희망은 더 커져간다.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들 편이다.

대한민국 기술사들의 희망을 위해

기술 리더가 사회 리더가 되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